2023. 6. 20.(화) 석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3. 6. 20.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	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	자치경찰협력과장	조재광	2133-9831
		교통경비팀장	김영준	2133-9842
		담 당 자	정명후	2133-9843
	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	택시정책과장	사창훈	2133-2310
		자동차관리팀장	박경철	2133-2341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■ 매수 : 4매		담당자	위재영	2133-2344

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, 폭주족 상습 출몰하는 용산구 소월로에서 소음 유발 이륜차 합동단속

- 6. 16.(금) 야간에 용산구 소월로에서 서울시,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
- 시민의 교통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 운행과 소음 근절의 하나로 실시
- 이륜차 소음 유발,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14건 적발하고 행정조치

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위원장 김학배)는 지난 6.16.(금)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, 용산구청, 용산경찰서,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.

□ 용산구 소월로는 서울역, 후암동, 해방촌, 경리단길, 한남동과 맞대고 있는 남산 중턱의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,

이륜차, 스포츠카 등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이륜차 굉음 등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곳이기도 하다.

□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용산구 소월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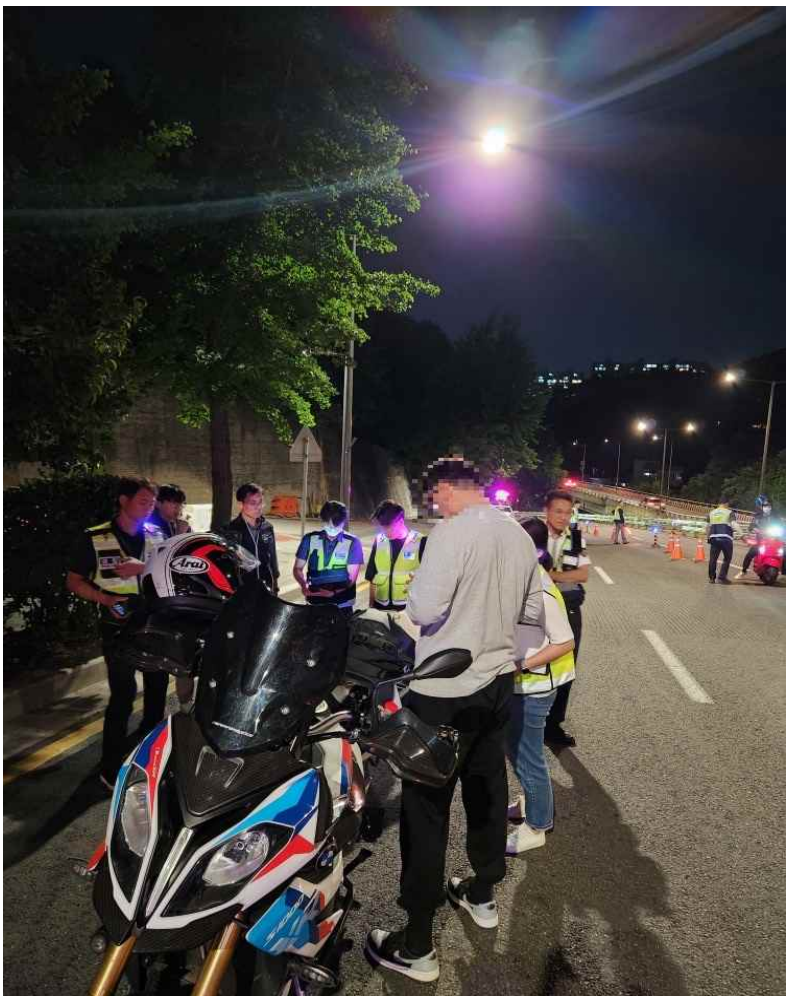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단속은 20시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실시하여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,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4건을 적발하였고, 지난 5. 25.(목)에는 1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등 위반행위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.

○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.

○ 소음기·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,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.

□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'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'를 추진하면서 이륜차 소음 발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에서 1차 단속을 시작으로 용산구 소월로에서 2, 3차 단속을 실시했으며, 하반기에도 이륜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.

□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“이륜차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,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 이어서 “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: 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사진 1부. 끝.

참고자료	**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사진 (6. 16.)**